

건축대학 신입생들에게 못다 한 이야기

Some Additional Words to the Freshmen of Architecture

신입생을 맞이하며

매년 3월 초가 되면 필자는 건축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건축이 무엇인지, 건축사라는 직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5년제 건축대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건축사라는 전문직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다. 신입생을 마주하는 그 순간은 늘 그렇듯이 마음이 설렌다. 이십 수 년 전 필자의 모습을 그들의 눈동자에서 발견한다. 고등학생 티를 채 벗지 못한, 미래의 위대한 건축사를 꿈꾸는, 희망에 부풀 건축학과 1학년 학생들에게 건축에 대한 첫인상을 어떻게 심어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건축이란 폭넓은 문화적 가치관과 투철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창의와 실험정신을 강조하는 조형예술로서... 건축대학은 현대사회의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엘리트 건축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며' ...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요람에 나와 있는 건축과 건축대학에 관한 설명을 구태여 끌어대지 않더라도 결국 건축에 대해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반복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연극이 끝난 후 화장을 지우면서 회한에 젖어드는 배우처럼 필자는 강의실을 나서며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올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5년 동안 '야적(철야작업)'을 밥 먹듯 하고, 주당 수십 시간을 작품 제작에 몰두하면서 애면글면 건축대학을 수료한 후에 맞닥뜨리게 될 현실에 대해서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은 졸업 후 운이 좋으면 연봉 2000만원 내외, 운이 나쁘면 1,000만원 내외의 건축사사무소에 취직할 것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시중 은행에 취업한 친구들의 초임이 얼마인지, 또는 제조업체에 취업한 고졸 사원의 초임이 얼마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UIA 인증이다 뭐다 해서 새롭게 출범한 5년제 건축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전에 비해 바뀐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야근 수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밤을 낮 삼아 상당한 기간을 건축사사무소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사장님, 소장님들은 봉급을 주기보다는 월사금을 받으면서 일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대학에서는 가르치는 게 전혀 없다고 불평하면서 말입니다. 그분들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결혼은 당분간 미루어두십시오.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아는 순간 대부분의 영악한 배우자 후보들은 등을 돌릴 것입니다. 결혼 적령기에는 대규모 건설회사에 잠시 몸담아 여러분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덧 우리 대학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여학생들은 특히 명심하십시오. 결혼까지는 문제없지만 출산과 더불어 건축계를 영원히 떠나기가 쉬울 것입니다. 육아를 전담해 줄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나 희생적인 친정어머니가 계시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중견으로 활동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모든

물가가 올라만 가는데 끝이 안보이게 자꾸만 떨어지고만 있는 설계비와 나날이 치열해지는 수주 경쟁 때문에 마음고생 깨나 할겁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막상 전업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창회에 가더라도 의사나 변호사가 된 고소득 전문직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건축사는 고소득 전문직인가?

『국세청이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와 변리사 등 부가가치세를 내는 개인 전문직 사업자 2만4,408명은 총 4조2,903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1인당 소득이 1억7,500만원인 셈이다. 사업자별로는 변리사가 1인당 평균 5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전문직 종사자 중 수입액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관세사(3억6,300만원), 변호사(3억4,000만원), 개업의사(2억9,400만원), 회계사(2억4,700만원), 세무사(2억1,300만원), 법무사(1억3,500만원)의 순이었다. 그러나 평가사(1억1,000만원)와 건축사(6,600만원)는 평균을 밑돌았다. 또 개업의들은 지난해 5만 3,788명이 15조8,277억 원의 수입을 올려 4만9,653명이 13조7,654억 원의 수입을 기록한 2001년보다 1인당 수입액이 2억7,700만원에서 2억9,400만원으로 1,700만원 늘었다.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입은 2001년 2만6,733명, 9조127억 원에서 지난해 2만9,772명, 11조3,759억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수입액도 3억3,700만원에서 3억8,200만원으로 4,500만원 늘었다. 이들이 낸 부가세는 올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신고실적 기준으로 회계사가 1인당 6,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2,060만원, 변리사 1,493만원, 세무사 1,330만원, 관세사 1,180만원, 건축사 498만원, 법무사 454만원의 순이었다. 병·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변호사 등 6개 전문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수입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03년 9월 21일자 파이낸셜 뉴스)

위의 인용문은 작년 각 일간지에 소개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내역이다. 과세 자료가 누락되기 쉬운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드나 건축사와 같이 모든 수입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직종에 관해서는 신문기사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이 기사를 본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우선 타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을 확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게다가 건축사 평균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렸거나 폐업위기에 몰린 이들의 심정이야 오죽할까. 건축이라는 결코 녹록치 않은 공부를 하고 몇 년의 실무를 거쳐 건축사라는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적인 직능을 수행하

지만 그 보상은 결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여러 전문직 중에서 최하위 수준의 수입이 이를 대변한다. 물론 조물주의 뒤를 잇는 창조자로서의 역할, 문화 엘리트로서의 소명의식,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이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바이지만 상당수의 건축사들에게는 자신과 상관없는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다. 문어 제발 잘라먹기 식의 과도한 수주 경쟁, 조만간 본격화될 건축시장의 개방, 개발시대가 마감되면서 시작된 업무량의 대대적 감소, 개발업자, 혹은 대기업의 고용인으로 그 사회적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건축사의 지위 등 건축사가 전문직으로서 응분의 대우를 받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은 너무도 많다. '이용사, 미용사 다음이 건축사...'라는 자조를 한날 우스개 소리로만 흘려들을 수 없다는 게 건축사들의 아픔이다. 건축사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듯하다.

해결책은 없나?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5년제 건축학과와 건축전문대학원을 합쳐 70여 개의 대학이 건축학사 혹은 건축학석사를 표방하고 나섰거나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건축공학 전공을 제외하고 건축설계 전공 학생 수를 한 대학에 40명씩 계산해도 어림잡아 매년 3천명 가까운 건축가가 배출된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보아도 터무니없이 많은 인력이 쏟아지는 셈이다. 오늘날의 열악한 건축사사무소 현실의 주범은 뭐니뭐니 해도 인력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이기 때문이다. 이를 심화시키게 될 학제 개편은 시장의 여건과 졸업생들의 미래를 고려하기보다는 각 대학들의 이해와 자존심에 좌우된 탓이다. 시장 기능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도태되는 이는 도태되고 살아남는 이는 살아남기를 기다리는 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이던가. 그동안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수많은 미래의 위대한 건축사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학에서 그리고 업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우선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는 건축대학들 간의 통합 논의에서 그 가능성을 본다. 다수의 대학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건축대학 단위를 구성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패컬티를 갖추고 엄선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0여 개의 대학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알맞은 20개 내외의 대학으로 개편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이지만 건축대학의 활로를 모색하고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건축사사무소 체제 역시 개편되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은 사무소에도 적용된다. 대형 건축사사무소와 아틀리에 사무소가 나뉘는 대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생존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만성적인 과당경쟁, 저가경쟁을 지양하려는 범 건축계의 단결이 요구된다. 제 값을 받고 제대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화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로서의 건축을 인정하는 사회적 토양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말자. 그것도 건축사들이 노력할 문제다. 이래저래 건축사는 비범한 능력을 지녀야 하나 보다. **■**